

월/요/광/장

조기인



최근 금융위기의 진원지로 지탄받는 미국 월가(Wall Street)에서 내려오는 격언 중에 "황소 뿐 아니라 곰도 돈벌이가 되지 않 돼지는 예외다"라는 말이 있다. 흔히 증권시장이 활황인 경우를 황소에 빗대어 'bullish'라 하고 침체된 경우를 곰에 빗대어 'bearish'라 한다. 돼지(pig)는 영어에서 속어로 탐욕 또는 과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격언은 시장상황이 좋을 때는 물론 나쁠 때에도 수익을 올릴 기회가 있지만, 탐욕을 부리면 시장과 상관없이 돈을 벌기 어렵다는 뜻이다.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버핏이 격언의 함의를 모를 리 없건만 왜 금기시되어 있는 탐욕을 적극 권장한 걸까?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Rich Dad, Poor Dad)'의 저자 로버트 기

황소, 곰, 돼지 그리고 놀란 개미

요사키(Robert Kiyosaki)는 투자자의 유형을 7가지로 나눈 뒤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형으로 '냉소적 투자자'를 꼽았다. '냉소적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유형이다.

이들은 시장 호전이 예견돼 주식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도 지난 날 손실을 입었던 아픈 기억을 상기하며 두려움에 질려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변명거리로 '지금 투자하면 안되는 이유'를 스스로 마구 만들어내며 자기 합리화에 급급하는 것이다.

이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투자에 나서게 되는데 스스로의 탐욕이 자신들을 놀라웠던 두려움을 넘어서는 때이다. '아직은 투자의 적기가 아니야'하며 스스로 최면을 걸다시피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투자를 통해 돈을 벌었다고 기뻐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자신만이 상대적으로 손해보고 있다는 자각이 들면서 그동안 자신을 억눌렀던 두려움이라는 최면을 깨뜨릴만한 탐욕이 생겨 소위 '묻지마' 투자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식 투자에 발을 들인 이들은

철한 이성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감정에 의지하다 보니 주식을 사거나 팔 때에 다른 유형의 투자자들보다 항상 한 발 늦게 된다. 즉, 이들 냉소적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나면 더 이상 매입할 사람이 없어져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이들이 주식을 팔고 나면 더 이상의 매도 주체가 없으므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탐욕과 두려움은 얼핏 보기에는 정반대의 심리현상인 듯하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제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탐욕과 두려움 사이에서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버핏도 "시장이 탐욕으로 가득할 때에는 두려워하고, 시장이 두려움에 싸여 있을 때에는 탐욕을 부려야 한다"는 투자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버핏처럼 능동적으로 시장의 탐욕과 두려움을 거꾸로 이용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겠지만, 최소한 시장의 비이성적인 움직임에 겁먹어 흔들리는 것만이라도 삼가고, 냉철한 판단으로 투자하기를 바란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정부, 무안공항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전남도가 오는 8일 개항 1년을 맞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무안공항이 서남권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동남아 노선 추가 배정과 무안~김포 노선 증편 등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안국제공항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

무안공항은 인천공항, 김포공항과 더불어 우리나라 항공교통망의 삼각축을 형성하기 위해 건설된 국제공항이다. 태평양시대에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국제공항이라는 명칭이 부끄럽다.

수선 취항 노선이 절대 부족하다. 무안공항은 정기 국제선 4편으로 개항한 이후 반년만에 13편까지 늘어났으나 고유의 압초에 부딪혀 항공사들이 취항을 포기하는 바람에 6편으로 줄어들었다. 활성화를 위해선 수요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신규 노선 개발 등 적극적인 공급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강원도 양양 국제공항이 좋은 사례다. 공항만 달랑 세워놓고 철도와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을 미뤄 개항 6년여만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안국제공항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

무안공항의 앞날도 낙관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전북 군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개발키로 한 것이 걸림돌이다. 수요 창출에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같은 호남권에 국제공항이 또 들어서게 되면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무안공항 활성화를 돕기보다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무안공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처방은 인천공항의 남아도는 국제노선 중 일본, 동남아 노선 2~3편을 무안으로 돌리는 것이다. 1월 1회뿐인 무안~김포간 항공편도 1일 2회로 증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전남도의 요구를 적극 수용, 무안공항 활성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실물경제 '위기' 경기침체 가속화되나

실물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은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기 하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의 입구에 들어와 있다고 진단했다.

9월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조업일수를 감안할 경우 7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재고율은 110%를 넘어섰다. 소비자판매는 지난해 9월보다 2.0%, 전월보다 3.8% 각각 감소했다. 소비자들이 목돈이 들어가기에 당장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물건은 구매를 꺼리며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 제조업 경기는 최악이다. 광주·전남 제조업의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56으로 지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67을 크게 밑돈 것으로 생산과 가동 증을 유발할 수 있다. 산 위에는 11월부터 한파가 일기도 하므로 쿨을 덮는 모자와 장갑도 준비한다.

최근의 경기 침체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전 세계의 공통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침체를 비껴갈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례없는 경기 하강이 가속화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적 고통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악화됐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경기침체에 환율 상승과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상당수 기업은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 최근 증권 건설업체 신상건설이 1차 부도 위기를 간신히 넘길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부도난 건설업체가 모두 251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6% 급증했다고 한다.

정부가 투자와 소비 등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키로 했지만 서두를 필요가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기를 놓치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중소기업과 서민, 지방 등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김하늘



우리는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자의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한 고사를 알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맹자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판사가 되었다면, 그래도 성선설을 주장했을까?

예전에 어느 후배 판사로부터 "판사로 근무한 지 6개월 만에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성악설이 맞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문득 해본 생각이 든다.

인간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에 대해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천 년 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적어도 법률 가운데는 성악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사건, 그런 재판을 하다 보면 점차 인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당사자나 증인의 말이라도 그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없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버릇이 들게 된다. 나아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법이 없다면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홉스의 분석에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굳이 "죄를 미워하고 인간을 미워하지 말라"는 법언을 들지 않더라도 판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인간에 대한 사랑에 있음은 틀림없는 것 같다. 필자 역시 판사로 임관된 초기에는 왜 그렇게 범죄자들이

기고

이철호



불계 물든 단풍과 함께하는 가을 산행은 생각만해도 매력적이다. 기상청은 올해 가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단풍이 절정기에 이르러서 많은 시민들이 일시적으로 산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체력과 건강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급격한 날씨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자칫 산악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적으로 산을 찾는 사람들은 2006년 2천102만명 지난해 3천67만명으로 46% 증가했으며, 산악사고 역시 2006년에는 4천590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천966건으로 11%나 늘었다. 광주의 경

치, 일찍 출발하고 일찍 하산한다. 추분(9월 하순경)을 시점으로 해가 짧아지므로 가능한 한 일찍 출발해서 해가 남아있을 때 하산을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가을철 대형조난 사건은 늦게까지 산행을 하다 날이 저물어 우왕좌왕하다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방수·방충·방염이 되는 옷을 준비한다. 이런 옷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는 계절은 여름이나 겨울이 아니라 기온차가 심한 봄, 가을이다. 갑작스러운 비와 함께 바람까지 분다면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다. 산 위에는 11월부터 한파가 일기도 하므로 쿨을 덮는 모자와 장갑도 준비한다.

단풍과 함께하는 안전한 가을산행

우도 현재 200여개의 산악회와 활동 중이며, 지난해 75건, 올해 9월 현재까지 65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제 소방방재청에서는 단풍철을 맞아 10월 중순부터 산행인구 증가와 더불어 안전사고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풍철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금당산과 제석산, 어등산, 삼각산 등산로에 13개의 비상구급함을 설치해 등산객이 비상시 직접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등산 집중기간에는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와 중심사, 어등산 등지에 구급대원을 배치해 갑작스런 산악안전사고에 대처하고 있다.

건강과 함께 지쳐있던 심신을 추스르기 위한 가을산행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예방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셋째, 비상식품과 손전등, 휴대용 예비 배터리 준비한다. 간식과 함께 고단백·고열량의 비상식품을 휴대하고 보온병에 뜨거운 차나 음료를 준비한다. 짧아지는 낮에 대비해 손전등을 준비하고 휴대용 예비배터리도 챙겨야 한다.

넷째, 가을철 전염병과 뱀 등을 조심한다. 유행성 출혈열, 쓰쓰구마시병, 렘로스피라증 등 전염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등산로 주변에 함부로 드러놓지 않도록 하고, 독이 오른 가을 독사도 조심해야 한다.

만약 산행 중 사고를 당해 긴급히 구조의 손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가장 먼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신속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하고 즐거운 가을산행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지켜야 할 것 같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장>

'에스컬레이터 한쪽 이용하기' 자칫 안전사고 우려

얼마전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이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서 왼쪽에서 있었는데 갑자기 한 중년 여성이 툭 밀치며 오른쪽으로 지나쳐 걸이 올라갔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왜 거기 서서 사람을 막는 거야"라며 한마디 하는게 아닌가. 실수로 필자를 밀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밀친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쾌하고 화가 났다.

몇 해 전, 에스컬레이터 문화를 잘못 받아들이는 바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워두고 오른쪽만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짐을 든 사람이나 어린이를 데리고 타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캠페인은 사라졌다.

더구나 서울 지하철처럼 이용객들이 그리 많지 않은 곳에서는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의 이용 편의보다는 한쪽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안전손잡이를 잡고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은 왼쪽에서 있으면 마치 비문화인듯, 교양없는 사람 취급을 한다.

안전 사고를 유발하고 다수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에스컬레이터 왼쪽 비워두기'는 옳지 않은 탐습행위이므로 개선해야 한다. ▲정경철·목포시 연산동

맹자가 우리나라 판사가 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되는 바도 아니다. 형사재판을 맡게 되면 매일같이 대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 범죄자들이요, 그런 범죄자들이 법정에서 이른바 피고인의 인권을 내세우며 자기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면 그 뻔뻔스러운 태도에 분노를 느끼기도 한다. 민사재판이나 가사재판을 맡는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분명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함께 사업도 하였을 텐데, 소송이 제기되면 원고건 피고건 재산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투고, 신성한 법정에서 거짓말과 위증을 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10년 이상 살을 맞고도 살아온 부부가 이혼소송에서 재산이나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자신들도 내팽개치고 상대방이나 상대방 집안까지 싸잡아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저들에게도 예전에 사람으로 평생을 함께 하자고 다짐하던 때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나쁘게만 보이던지, 어떻게 죄를 짓고도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무조건 엄벌하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다. 다행히 필자는 좋은 선배 판사들을 만나 그분들로부터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

그분들은 필자에게 법정에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쫓기고 질박한 상태에 있으므로 판사는 언제나 자신에게 재판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느끼고 물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다. 그분들 덕분에 처음에 범죄 사실밖에 보이지 않던 필자가 이제는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가족관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처와 어린 자식들을 둔 피고인에게 심정을 선고해야 할 때면 몇 번씩 기록을 들추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좋은 변호인이 아니면 이제는 필자가 세월이 흘러서 그냥 물러버린 판사가 되고 만 것인지는...

유난히도 사람이 그리운 가을이 되면 필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분들을 찾아뵙고 한민족을 함께 부리고 싶어진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영·유아 감기약에 유해 색소 검출... 대책 마련 시급

영·유아들은 알약이나 가루약을 잘 먹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로 시럽으로 된 달콤한 감기약을 먹인다.

그런데 이런 시럽형 감기약이 색소명어로 돼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타르 색소를 쓰기 때문이다. 석유나 석탄을 정제하고 남은 물질을 추출해 만드는 이 색소는 유해성 논란으로 식품에서도 점차 사용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약국에서 판매하는 영·유아

시럽형 감기약 10종에 대해 타르색소 검출 실험을 해본 결과 10종 모두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제약회사 관계자는 식약청의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하지만 걱정이다.

관계 당국과 식약청은 아이들에게도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감기약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대영·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無等鼓 인지 부조화
A, B 두개의 실험집단이 있다. 두 집단에 지루하고 재미없는 실험을 시킨 뒤 '실험이 재미있다'는 거짓말을 하는...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